

# 벤투호, 코로나시대 첫 유럽 원정길 올라...두 차례 평가전

‘오스트리아 빈’서 5일 멕시코·17일 카타르와 격돌  
손흥민·황희찬·황의조·이강인 등 해외파 주축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유럽 원정길에 올랐다. 벤투호는 8일 오전 인천공항에 소집돼 A매치를 치르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출국했다. 국내파 10명이 벤투 감독과 함께 먼저 출국하고,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 소속 선수들은 이날 오후 열리는 대한축구협회(FA)컵 결승 2차전 일정으로 9일 새벽에 따로 떠난다.

대표팀은 빈에서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다. 한국시간으로 15일 오전 5시에 비너 노이슈타드 스타디움에서 멕시코와 불고, 17일 오후 10시 BSFZ 아레나에서 카타르와 격돌한다. 벤투호의 해외 원정 평가전은 지난해 11월 19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치른 브라질과의 평가전 이후 1년 만이다. 또 정상적인 A매치 평가전도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

연맹(EAFF) E-1 챔피언십 이후 처음이다. 벤투호는 지난해 김학범 감독의 23세 이하(U-23) 올림픽대표팀과 두 차례 스페셜 매치를 치렀지만, 해외파가 빠져 완전한 의미는 평가전은 아니다. 이번 유럽 원정 평가전은 해외파가 주축이다. ‘캡틴’ 손흥민(토트넘)을 비롯해 황희찬(라이프치히), 황의조(보르도), 이강인(발렌시아), 권창훈(프라이부르크), 이재성(홀슈타인 킬), 황인범(루빈 카잔) 등이 총출동한다. 또 김학범호의 핵심인 원두재(울산), 엄원상(광주), 정대욱(대구) 등도 벤투호의 부름을 받았다. 반면 코로나19 확진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뛰는 왼쪽 풀백 김진수(알

나스르)는 대표팀에서 제외됐다. 대체재로는 이용(전북)이 발탁됐다. 독일에서 뛰는 권창훈과 이재성도 독일 재입국시 격리 기간으로 인해 15일 멕시코전만 치른 뒤 조기 소속팀으로 돌아간다. 이에 벤투 감독은 주세종(서울)을 추가 발탁해 총 27명의 선수단을 꾸렸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김학범호도 이날 밤 인천공항을 통해 이집트 카이로로 출국한다. 김학범호는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3개국 친선대회에 출전한다.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3시 카이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이집트와 만나고, 14일 오후 10시 같은 장소



태극전사들이 유럽 원정 평가전에 나선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에서 브라질과 붙는다.

김미희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펜싱·한국전력공사 육상팀 전남 연고 계약

김정환·구본길 펜싱팀 전남팀으로 맹활약 기대  
육상팀 만들어져 초·중·고·대·실업 연계 기틀 마련

2012런던올림픽 펜싱 금메달 김정환과 구본길 등이 속해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펜싱 사브르팀과 한국전력공사 육상팀이 전남을 연고로 활약한다. 전남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펜싱 사브르팀과 한국전력공사 육상팀의 연고를 전남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두팀은 서울 소속으로 전국체육대회와 각종 대회에 참가했었지만 연고를 이전함에 따라 초·중·고·대·실업 연계육성 기반 마련과 전남체육 경쟁력 강화 기반이 마련됐다.

통해 약 300점 이상의 종합점수 상상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럭비팀에 이어 두 번째로 전남에 동지를 둔 한국전력공사 육상팀은 고흥출신 김재용 감독을 필두로 작년 동아마라톤 우승자인 심종섭 등 11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됐다. 100회 체전에서 육상 종목 종합득점 2696점을 획득하며 종합 6위에 오른 전남은 한국전력공사 육상팀 연고 이전을 통해 약 300점의 득점 상승과 종목 총득점 3000점 획득을 예상하고 있다. 김재용 회장은 “펜싱팀과 육상 실업팀이 전남을 연고로 활약하게 돼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연계시스템 기초가 마련됐다”며 “다른종목으로 확대



좌측부터 김정환, 구본길.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함평학다리고 선수들과 박근철 지도자(왼쪽 검정색 티), 윤성용 함평군청 감독(오른쪽 검정색 상의)

## 함평군, 레슬링 메카 자부심 지켰다

제2회 경찰청장기, 메달 총 13개 획득

과거 올림픽에서 레슬링 메달리스트를 3명이나 배출해 낸 레슬링 메카도시 함평이 2개의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보여줬다. 먼저 함평군청 레슬링팀은 지난 29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2회 경찰청장기 레슬링대회에 참가했다. 제2회 경찰청장기 레슬링대회는 2020년 경찰공무원 특별 채용을 하는 채용시험의 일부로, 대회에서 체급별 1위 입상자에게 실기 점수 만점 및 면접의 기회가 제공되는 대회이다. 함평군청 레슬링팀은 여자 자유형 55kg에서 김형주와 남자 그레코로만 63kg 김종민, 77kg 이정근이 각 체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각 체급별 1위인 30명에 포함됐다. 각 체급별에서 1위를 한 30명의 선수들은 최종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 4명을 선발하고, 내년도 경찰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될 예정이다. 남자 그레코로만 67kg에 출전한 김경훈과, 72kg 양시운은 아쉽게 결승에서 패하며 은메달에 만족했다. 같은 장소에서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제46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학 레슬링대회가 열렸다.

함평=김평준기자



제12회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 및 대학장사씨름대회 7일 전남 구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2회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 및 대학장사씨름대회에서 각부문 장사로 등극한 선수와 김수호 군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순호 구례군수, 엄화진(국회금강사, 구례군청소속)선수, 노은수(여자2부 매화급, 경남생활체육)선수, 김채린(여자2부 국화급, 부산광역시)선수, 최다혜(매화급강사, 거제시청)선수, 양현수(여자2부 무궁화급, 경남생활체육), 문정현 구례군체육회장 순.

## 전북, 구단 역사상 첫 ‘더블’...15년 만에 FA컵 우승

‘이승기 멀티골’ 울산에 2-1 역전승...1, 2차전 합계스코어 3-2



2020 하나은행 FA컵 결승 2차전 전북 현대모터스와 울산 현대축구단의 경기가 열린 8일 전북 전주 전주시 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 현대모터스 이승기 선수가 골을 성공시키고 동료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15년 만에 대한축구협회(FA)컵 정상에 오르며 구단 역사상 첫 ‘더블’을 완성했다. 전북은 8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0 하나은행 FA컵 결승 2차전에서 전반 4분 주니오에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이승기가 후반 8분과 26분 연속골을 터트리며 2-1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 4일 1차전에서 1-1로 비겼던 전북은 1, 2차전 합계스코어 3-2로 울산을 제압하고 FA컵 챔피언이 됐다. 전북은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도 4승1무(정규리그 3승·FA컵 1승1무)로 울산을 압도했다. 이로써 전북은 2005년 이후 15년 만에 FA컵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구단 통산 4번째(2000년·2003년·2005

년·2020년) 우승이다. FA컵 최다 우승 순위에선 수원 삼성(5회)에 이어 포항과 공동 2위다. 또 K리그1 우승과 함께 FA컵까지 제패하며 창단 첫 시즌 ‘더블’ 역사도 새로 썼다. 프로축구에선 2013년 포항 스틸러스(정규리그·FA컵) 이후 두 번째다. 다만 AFC 챔피언스리그 전신인 아시아클럽챔피언십을 포함할 경우 2002년 수원(FA컵·클럽챔피언십)까지 총 3개팀이 된다. 더블 역사를 쓴 전북은 18일 카타르에서 재개하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구단 사상 첫 ‘트레블(3관왕)’에 도전한다. 지난 1일 K리그1 최종전에서 공식 은퇴경기를 ‘라이언링’ 이동국은 후반 막판 교체로 나와 생애 첫 FA컵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뉴스

## 두산 알칸타라, KBO리그 10월 MVP

KBO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후원하는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10월 MVP에 두산 베어스의 라울 알칸타라가 최종 선정됐다. 월간 MVP는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SOL(솔)’에서 진행된 팬 투표 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합산한 총점으로 최종 선정된다. 최종 투표 결과 알칸타라는 기자단 투표(30표 중 14표)에서 1위, 팬 투표(168,544 중 34,874표)에서 2위를 차지해 총점 33.68점으로 개인 첫 KBO 월간 MVP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알칸타라는 10월 한 달간 6경기에 등판해 전승을 거두며 승리 1위에 올



랐다. 10월8일 문학 SK 와이번스전에서는 2회 9번의 투수로 세 타자를 범타 시키며 통산 7번째 한 이닝 최소투구 탈삼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평균자책점 1.34와 41탈삼진으로 해당 부문 2위에 올랐다. 김미희기자